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들의 MMPI 프로파일 특성

최 문 희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 현 섭[†]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본 연구는 음주운전으로 수강명령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성격, 정서 및 현재의 적응상태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MMPI 프로파일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Pd와 Pt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충동성 비순응성 및 좌절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나타내며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여 반복되는 행동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향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불안감과 긴장감을 시사하지만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과 일정시간 동안 통제되는 상황에 대한 염려와 긴장감 등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구간별로 보면, Hs, D, Hy, Mc, Sc 및 Ma 척도는 T45~59점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Pd 척도와 Pt 척도는 T60~69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Pa 척도와 S 척도는 T44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군집분석에서는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 중 19.5% 정도가 개별적인 심리적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Pd, Pt 및 Sc 척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의존집단은 알코올 남용집단에 비해 D, Hy, Pd 및 Pa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MMPI 패턴은 유사하여 음주정도에 따른 성격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알코올의존, MMPI, 군집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 현 섭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121-874)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72-11
TEL : 02-719-0393 / FAX : 02-719-8189 / E-mail : hscho@kodcar.or.kr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도의 20세 이상 성인 음주율은 1995년 63.1%, 1998년 68.4% 보다 더 증가한 69.8%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남성은 1998년 음주율이 83.4%였던 것에 비해 2001년 82.7%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여성의 음주율은 1995년 44.6%, 1998년 54.9%, 그리고 2001년 59.5%로 조사되고 있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20세 이상 남자의 35.6%, 남자 음주자의 약 절반정도가 고위험 음주자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음주문화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보건복지부, 2002). 이러한 음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음주운전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점유율은 2001년에 약 9.6%로 연평균 1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의 수도 연평균 7.9%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

운전이 아니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만 음주운전으로 본다. 알코올 농도가 0.05%라는 것은 65kg의 건강한 성인 남자가 소주의 경우 2잔, 맥주의 경우 2잔 반, 정종은 3잔, 양주는 1잔을 마시면 나타나는 수치이다(황성익, 1996). 알코올은 처음에는 행복감, 안락감 등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하지만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판단, 반사, 주의, 관찰 등을 어렵게 한다. 또한 협응이나 복잡한 변별을 요구하는 운동적인 과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의 상태에서 장애를 받으며 대뇌작용을 감소시키며 고등정신기능의 손상을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조대경, 1995). 따라서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아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36% 이상이면 구속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알코올 중독과도 관련이 깊어 재발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법적인 제재만으로는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이 단순히 벌금,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아니라

표 1.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추세(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년도	발생건수(점유율)	사망자(점유율)	부상자
1993	14,961(5.7)	234(5.7)	21,765
1994	17,900(6.7)	565(5.6)	26,918
1995	17,777(7.1)	690(6.7)	26,300
1996	25,764(9.7)	979(7.7)	38,897
1997	22,892(9.3)	1,004(8.7)	36,023
1998	25,269(10.5)	1,113(12.3)	40,489
1999	23,718(8.6)	998(10.7)	39,282
2000	28,074(9.7)	1,217(11.9)	47,155
2001	24,994(9.6)	1,004(12.4)	42,165
연평균 증가율	11.41%	7.94%	12.34%

음주 운전자에 대한 알코올 남용의 예방과 치료 및 그 개선을 도모하여 알코올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술취한 상태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성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게 되었다(이미형, 1998, 재인용).

수강명령제도는 처벌적인 측면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사회봉사명령과는 달리 전문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각 보호관찰소에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서울보호관찰소와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민간 전문기관인 지역사회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현재 서울알코올상담센터에 음주운전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수원보호관찰소의 경우도 경기 수원 알코올 상담센터의 전문 인력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집행하고 있다(박은경, 2003).

본 연구는 서울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서울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주 2회씩 매월 총 6회기로 진행을 한다. 이중 봉사활동은 8시간인데 수강명령

을 40시간 이상 받은 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코올 관련교육 5회, 시청각 교육 3회, 준법교육 2회, 체험활동 2회 그리고 집단상담 4회기로 이루어져 있다. 알코올 관련교육에서는 알코올 문제의 정의와 진단,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 문제가 가족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고, 건전한 음주를 위한 음주수칙과 지금까지의 자신의 음주습관을 재평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시청각 교육은 미국과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와 대책의 비교, 준법 위법의 운전실험 및 의존자의 재활과정을 그린 영화로 구성되어 있다. 준법교육에서는 운전자의 의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을 강의하고, 체험활동은 음주안경을 쓰고 음주상황을 재연해보는 알코올 가상체험과 지역사회에 나가 직접 실행해보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집단상담에서는 보다 심리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자들이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하고 있다(박은경, 2003).

이렇듯 수강명령 교육은 음주운전자들이 음주와 관련하여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대상자들

표 2.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10:00~ 12:00	등록, 일정소개 및 심리검사	알코올교육2	알코올교육 4	알코올 의존 회복 경험담 AA	봉사활동	알코올교육 5
13:00~ 14:30	알코올교육1	시청각교육1	체험활동 교통질서 캠페인 토론	시청각교육 2	봉사활동	시청각교육 3
14:30~ 16:30	준법교육A	알코올교육3		준법교육B		
16:30~ 18:00	집단상담1	집단상담2	집단상담3	집단상담 4		

이 절주 또는 금주를 하도록 동기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성격이나 심리상태 및 음주운전에 대한 태도와 신념 같은 심리적인 측면보다는 법적, 제도적 제재를 통해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고자 했던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최상진 외, 2001), 보다 음주운전자의 동기 및 사고의 변화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로 집단상담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음주운전의 재발을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특히 음주 및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성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음주운전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았다. 가장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결과로는 '행동 통제의 부족'(behavioral undercontrol)과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의 성격특성이 음주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Cox, 1987; Nathan, 1988; Sher & Trull, 1994). MMPI와 관련하여 볼때, '행동 통제의 부족'이라는 특성은 과활동성, 충동성, 공격성, 반사회성 및 감각추구성향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MMPI의 반사회성 척도(4번 척도)의 상승으로 설명되며, '부정적 정서성'이라는 개념은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주로 MMPI상에서 우울증 척도(2번척도)와 강박증 척도(7번 척도)의 상승으로 설명된다(신행우, 1998, 재인용). Sutker, Brantley와 Allain(1980)은 음주운전자 집단과 비음주운전자 집단의 MMPI 프로파일을 비교한 결과, 음주운전자 집단이 비음주운전자 집단에 비해 반사회적 경향과 우울증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Donovan(1980) 등도 공격성, 권위에 대한 불허용, 불일치성, 현실도피, 미성숙 부진한 학업수행, 사회적 활동에 과다참여 및 음주와 음주운전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음주운전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고, 다른 심리학적 지표들

로는 일반운전자 집단과 비교해서 음주운전자 집단이 좀 더 감각추구 경향이 많고 정서적 적응이 부진하며 통제위치가 외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낮고, 우울, 자살 및 편집증 수준이 높다고 보고했다(Donovan, 1980; Selzer & Barton, 1977). Cox(1987)는 음주문제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로 비순응성 또는 반사회적 경향을 언급했으며 이외에도 독립성, 공격성, 충동성, 감각추구 및 과잉행동성 등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MMPI를 이용하여 알코올의존으로 입원한 사람들의 성격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T점수가 모두 60점 이하였고 결과도 일관되지 않았다(박중호 외, 1989; 조성남, 이대희, 1984). 그 대신 TPQ(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라는 성격검사로 이루어진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행우(1998)는 음주운전자는 음주의 양이나 빈도같은 음주정도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잦은 과음과 폭음의 경향성을 보일 수 있고 음주정도와는 별개로 음주후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음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채규만과 류명은(2002)의 연구에서도 알코올 중독 음주운전자 집단이 알코올 비중독 음주운전자 집단이나 일반 운전자 집단에 비해 충동성과 반사회성 등의 행동통제 부족을 반영하는 새로운 경험추구 특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이 아닌 음주운전자들과 알코올 중독인 음주운전자들의 성격특성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충동성이나 반사회성은 알코올 중독과 관련있음을 시사했다. 정서적으로도 음주운전자 집단이 우울, 불안 및 적개심이 높아 전반적으로 정서가 불안정하며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결합되면 높은 비율의 자동차 사고와 연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이미형, 1998; Steer, Fine & Scales, 1979).

본 연구는 음주운전으로 수강명령교육을 받게 된 비자발 집단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자의 성격, 정서 및 적응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MMPI를 사용하였는데, 외국에서는 알코올의존자 뿐 아니라 음주운전자들의 MMPI 특성에 관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자들의 MMPI 프로파일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고 그 결과도 일관되지 않고 있다. 또한 MMPI는 알코올 남용에 선행하는 성격적 위험요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알코올 남용이 다른 정신장애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요소를 더 많이 내포한다고 하여 최근에는 TPQ 등의 성격평가도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신행우, 1998; 채규만 & 류명은, 2002). 그러나 직접적으로 음주운전자들의 재활과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센터에서 효과적인 교육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의 예언변인으로 성격적 위험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 외에 알코올 남용이나 음주운전의 결과로 야기된 성격 및 정서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MMPI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수강명령교육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성격, 정서 및 현재의 적응상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뿐만 아니라 수강명령교육 대상자 중 알코올 남용정도가 심각한 집단을 선별하여, 비교적 덜 심각한 집단과 MMPI 프로파일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02년 9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서

울보호관찰소 4개 지소에서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에 의뢰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집기관은 서울알코올상담센터이었다. 교육생들은 수강명령시간에 따라 교육 참여시점과 종료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도이탈자나 수강시간이 전월에서 이월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알코올 검사지와 다면적 인성검사지(MMPI) 등을 모두 작성한 교육생은 119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성별을 통제하기 위해 여성 5명을 제외하였고 MMPI의 K척도 또는 L척도가 T 70점 이상으로 임상척도의 타당도에 문제가 제기되는 23명의 자료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87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도구

한국형 알코올중독 선별검사(NAST)

우리나라에서 김경빈 등(1991)이 개발한 NAST(National Alcoholics Screen Test)는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12개 문항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가지 내용은 병적인 알코올 사용형태에 관한 문항,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직업적 혹은 사회적 기능의 장애에 관한 문항, 그리고 알코올로 인한 내성이나 금단증상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이상의 문항에 응답하거나 항목 10, 11번에 체크하면 알코올의존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

1943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처음 발표된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는 566 문항으로 이루어진 질문지형 성격검사로, 임상장면에서 진단적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또 그 타당성과 활용성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진 검사이다. 566문항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한 개인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MMPI-566이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였다. MMPI는 3개의 타당도 척도(L, F, K척도)와 10개의 임상척도(건강 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특성-여성특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내향성)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을 통해 분석되었다.

1)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들의 MMPI 프로파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T점수를 구간별로 나누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들 중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군집을 알아보기 위하여 MMPI 프로파일 결과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하였다. 군집화 유형으로는 계층적 군집화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거리측정 방법은 유클리디안 제곱거리(squared euclidian distance), 군집화 방법은 집단간 평균결합을 나타내는 between-groups linkage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군집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4)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들을 알코올 남용집단과 의존집단으로 구분하여 MMPI 프로파일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3.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내 용	구 분	빈도	백분율(%)
연령	10대 이전	2	2.3
	20대	19	21.8
	30대	33	37.9
	40대	27	31.0
	50대 이후	6	6.9
학력	국졸	7	8.0
	중졸	16	18.4
	고졸	46	52.9
	대졸	16	18.4
	대학원 이상	2	2.3
결혼 상태	미혼	31	35.6
	기혼	37	42.5
	별거	1	1.1
	이혼	16	18.4
	배우자 가출	1	1.1
	재결합	1	1.1
	종교	기독교	13
천주교	7	8.0	
불교	29	33.3	
무교	35	40.2	
기타	3	3.4	
근무 형태	무직	6	6.9
	일용직	8	9.2
	정규직	35	40.2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	33	37.9
	기타	5	5.5
월평균 수입	49만원 이하	7	8.0
	50~99만원	11	12.6
	100~199만원	35	40.2
	200~299만원	20	22.0
	300~399만원	7	8.0
400만원 이상	7	8.0	
전 체		87	100.0

결 과

음주운전 수강명령교육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MMPI의 K척도 또는 L척도가 T 70 이상인 23명을 제외한 87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대상자의 연령을 보면, 30~40대가 가장 많았는데 30대는 전체의 36.9%를 차지했고, 40대는 31.0%였다. 학력으로는 고졸이 52.9%로 가장 많았고 대학 졸업과 대학원 졸업도 각각 18.4%,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형태를 보면, 기혼이 42.5%로 가장 높았고 미혼은 35.6%였다. 그러나 이혼한 사람이 18.4%, 배우자가출과 별거도 각각 1.1%를 차지하고 있어, 대상자 5명 중 대략 1명 정도는 전반적인 결혼상태가 원만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종교로는

무교가 4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교가 33.3%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근무형태로는 정규직이 40.2%,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가 37.9%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7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100~199만원 정도인 사람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상인 경우도 16.0%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수강명령교육 대상자들의 MMPI 프로파일 특성 분석

음주운전 수강명령교육 대상자들의 MMPI 프로파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원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T점수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그림 1에서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타

표 4. 대상자들의 MMPI 평균과 표준편차

척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L	35.16	66.16	49.37	8.41
F	35.35	65.55	46.39	6.10
K	33.23	68.63	54.51	8.82
건강염려증(Hs)	31.81	70.78	48.75	8.99
우울증(D)	26.51	67.50	47.90	8.53
히스테리(Hy)	29.44	72.27	49.11	8.42
반사회성(Pd)	44.58	81.09	62.73	8.30
남성특성-여성특성(Mf)	22.71	70.87	47.20	9.96
편집증(Pa)	31.30	65.42	45.12	7.42
강박증(Pt)	49.64	78.24	62.95	6.64
정신분열증(Sc)	43.89	72.58	56.51	6.84
경조증(Ma)	32.95	73.54	54.91	8.14
내향성(Si)	27.59	64.94	44.67	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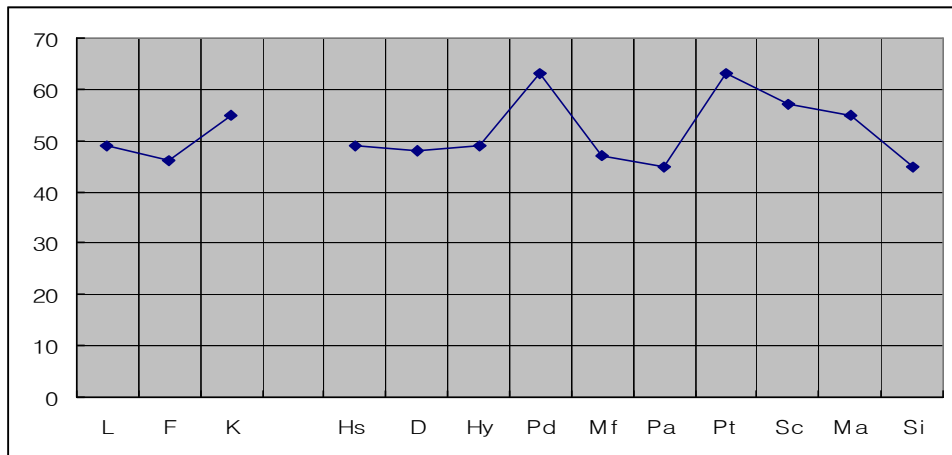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자들의 평균 MMPI 프로파일

당도 척도는 완만한 'V'모양으로 비교적 적응적인 방어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임상척도를 보면 Pd와 Pt 척도는 각각 62.73, 62.95로 비교적 높은 T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음주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행동 통제의 부족'과 '부정적 정서성'이 강하다는 이전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Cox, 1987; Nathan, 1988; Sher & Trull, 1994). 즉 Pd 척도의 상승은 충동성, 비순응성, 좌절에 대한 인내력의 부족 및 사회적 규범의 무시 등의 특성을 반영하며,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여 반복되는 행동문제를 야기하는 '행동 통제의 부족'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Pt 척도의 상승은 '부정적 정서성'과 관련이 있는데 음주운전자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 불안정감 및 긴장감 등을 강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 Pt척도의 상승은 대상자들의 기본적인 성향인 점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이후 받게 된 처벌이나 수감 명령 교육과 같이 일정시간 동안 통제되고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인한 불안, 긴장, 염

려감 및 불편감 등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현재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일시적인 불안감과 심리적 불편감이 드러나게 된 결과이며, Pt 척도의 조직화나 도덕적이라는 성격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MMPI 결과를 살펴보면, 세부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인 면이 많아 T점수를 70이상, 60~69점, 45~59점, 그리고 44점 이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Hs, D, Hy와 같은 신경증적 척도와 Mf, Sc, Ma척도는 T45~59점 사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52.9%, 58.6%, 63.2%, 50.6%, 65.5%, 59.8%). 반면, Pd척도와 Pt척도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구간이 T60~69로 각각 43.7%, 48.3%이었으며 T70이상인 경우도 두 척도 모두 1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른 척도와 달리 Pa 척도와 Si 척도는 T점수가 44점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56.3%, 57.5%). 김종술(1988)에 의하면, 낮

표 5. 척도 구간별 T점수 분포의 빈도와 비율

척도	T 44이하	T 45~59	T 60~69	T 70 이상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L	29(33.3)	48(55.2)	10(11.5)	0(0.0)
F	37(42.5)	47(54.0)	3(3.4)	0(0.0)
K	11(12.6)	54(62.1)	22(25.3)	0(0.0)
건강염려증(Hs)	29(33.3)	46(52.9)	11(12.6)	1(1.1)
우울증(D)	29(33.3)	51(58.6)	7(8.0)	0(0.0)
히스테리(Hy)	25(28.7)	55(63.2)	6(6.9)	1(1.1)
반사회성(Pd)	1(1.1)	33(37.9)	38(43.7)	15(17.2)
남성특성-여성특성(Mf)	35(40.2)	44(50.6)	7(8.0)	1(1.1)
편집증(Pa)	49(56.3)	36(41.4)	2(2.3)	0(0.0)
강박증(Pt)	0(0.0)	30(34.5)	42(48.3)	15(17.2)
정신분열증(Sc)	2(2.3)	57(65.5)	24(27.6)	4(4.6)
경조증(Ma)	9(10.3)	52(59.8)	23(26.4)	3(3.4)
내향성(Si)	50(57.5)	33(37.9)	4(4.6)	0(0.0)

은 Pa(T44이하)는 높은 점수와 마찬가지로 의심 성이 많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남에게 잘 속을 만큼 타인에게 예민하지 못한 상태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다소 문제해결의 유연성이 부족하며 회피적인 사람일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낮은 Si(T40이하)는 외향적이고 충동적이며 정서통제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한다(김중술, 1988). 그러나 높은 T점수와는 달리 낮은 T점수는 개인특성이나 전체 프로파일의 맥락 속에서 해석될 때 보다 명확해지므로, 음주운전 수감명령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음주운전 수감명령교육 대상자들의 군집간 MMPI 프로파일 특성 분석

수감명령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성격이나 정서상태가 동질한 집단으로 구분될 경우 보다 용이하게 심리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음주운전자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들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에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군집의 유형으로는 계층적 군집화 방법을 이용하였고 거리측정 방법은 유클리디안 제곱거리(squared euclidian distance), 군집화 방법으로는 집단간 평균결합을 나타내는 between-groups linkage를 사용하였다.

먼저,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2~4개의 군집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질 경우에는 70사례(80.5%), 12사례(13.8%), 4사례(4.6%), 1사례(1.1%)로 나누어지며, 3개의 군집일때는 70사례(80.5%), 13사례(14.9%), 4사례(4.6%)로 분류되었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의 군집으로 나눌 경우에는 70사례(80.5%)와 17사례(19.5%)로 나누어졌다. 만약, 3개나 4개의 군집으로 나눌 경우 군집내에 포함된 사례수가 4개 또는 1개로 묶여지게 되는데, 하나의 군집을 대표하기에는 매우 적은 수치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2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2에서는 두 군집의 MMPI 프로파일을 같이 표시하였다.

두 군집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 $\chi^2=62, ms$, 학력 $\chi^2=4.57, ms$, 결혼 $\chi^2=3.16, ms$, 종교 $\chi^2=5.12, ms$, 근무형태 $\chi^2=6.44, ms$, 그리고 월수입 $\chi^2=13.29, ms$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군집간의 MMPI 척도의 평균차를 살펴하기 위하여 MMPI 원점수에 대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MMPI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상승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T 점수로 제시하였다. T-test 결과 L, K의 타당도 척도와 Si 척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척도에서 두 군집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MMPI의 평균을 보면, 군집 1보다는 군집 2집단이 프로파일의 전반적인 상승을 보였으며, 타당도 척도에서도 군집 1은 완만한 V'자를 나타내고 있어 적응적인 방어를, 군집 2는 보다 솔직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척도를 보면, 군집 2의 경우 전반적인 척도의 상승과 함께 특히 Pd와 Pt 척도는 T 70에 가까운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Sc 척도에서도 T점수가 약 6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운전 수강명령교육을 받는 대상자 중 약 19.5%(17명)정

표 6. 군집별 MMPI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군집 1(N=70)	군집 2(N=17)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L	49.61(8.35)	48.38(8.89)	.54
F	44.94(4.89)	52.39(7.01)	-5.15***
K	54.78(8.39)	53.40(10.64)	.58
건강염려증(Hs)	46.31(7.22)	58.81(8.67)	-6.15***
우울증(D)	46.37(7.90)	54.19(8.34)	-3.62***
히스테리(Hy)	47.04(6.98)	57.64(8.64)	-5.35***
반사회성(Pd)	61.05(7.18)	69.68(9.20)	-4.20***
남성특성-여성특성(Mf)	45.81(9.54)	52.93(9.91)	-2.74**
편집증(Pa)	42.60(5.41)	55.51(5.22)	-8.88***
강박증(Pt)	61.14(5.82)	70.44(4.06)	-6.22***
정신분열증(Sc)	54.35(5.34)	65.42(4.90)	-7.80***
경조증(Ma)	54.00(8.11)	58.67(7.38)	-2.16*
내향성(Si)	44.23(9.13)	46.47(6.93)	.95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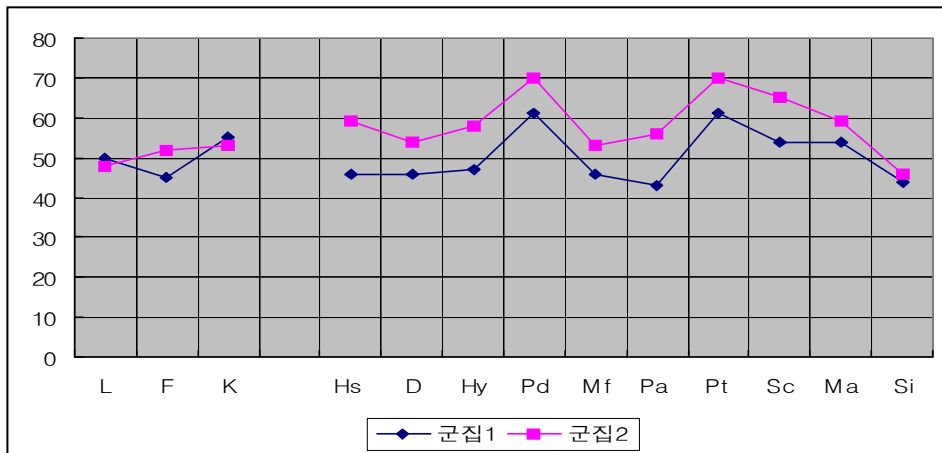


그림 2. 군집별 MMPI 프로파일

도는 성격구조도 더욱 취약할 뿐 아니라 현재의 심리적 불편감도 매우 클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알코올의존이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규 및 동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뿐 아니라 개별적인 심리상담도 병행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알코올 의존 정도에 따른 MMPI 결과 분석

음주 운전자들의 알코올의존 정도에 따른 MMPI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NAST를 이용하여 집단을 분류하였다. NAST의 전체 12문항 중 4문항에 응답하거나 항목 10, 11 번에 체크하면 알코올의존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나머지 응답자에 대해서는 알코올남용집단으로 칭하였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준법강의를 통보 받은 자로써, 반복된 음주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NAST의 알코올 의존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지라도 음주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

다. NAST의 무응답자 13명을 제외한 74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이중 19명(25.7%)이 알코올 남용정도가 심한 알코올의존집단으로, 나머지 55명(74.3%)은 알코올남용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두 집단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 $\chi^2=5.64, ns$, 학력 $\chi^2=4.21, ns$, 결혼 $\chi^2=7.39, ns$, 종교 $\chi^2=1.54, ns$, 근무형태 $\chi^2=4.30, ns$, 월수입 $\chi^2=8.73, ns$).

알코올의존 정도에 따른 성격 및 정서상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의 MMPI 원점수를 t-test 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의 MMPI 상승정도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MMPI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T 점수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타당도 척도에서는 알코올 의존 집단에서 F척도가 더 높고($t=-2.54, p<.05$) K척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t=2.29, p<.05$)를 보였다. 그리고 임상척도에서는 D, Hy, Pd 및 Pa척도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6, p<.05, t=-2.21, p<.05, t=-2.53, p<.05, t=-2.27, p<.05$). 즉, 알코올 의존집단이 알코올남용집단에 비해 우울감과 정서적 불안정성 등을

표 7. 알코올성 장애 여부에 따른 MMPI 결과 비교

	알코올남용(N=57)	알코올의존(N=19)	t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L	49.32(8.48)	47.39(7.34)	.88
F	45.07(5.86)	49.00(5.67)	-2.54*
K	55.79(8.53)	50.58(8.61)	2.29*
건강염려증(Hs)	47.31(7.59)	51.67(11.45)	-1.88
우울증(D)	46.96(8.27)	51.93(8.34)	-2.26*
히스테리(Hy)	47.68(7.84)	52.42(8.67)	-2.21*
만사회성(Pd)	61.37(7.87)	66.78(8.58)	-2.53*
남성특성-여성특성(Mf)	46.39(10.55)	47.57(9.68)	-.43
편집증(Pa)	43.32(6.70)	47.24(7.08)	-2.27*
강박증(Pt)	62.19(6.59)	63.80(6.76)	-.91
정신분열증(Sc)	55.46(6.74)	58.21(7.20)	-1.51
경조증(Ma)	53.80(7.76)	56.05(7.84)	-1.09
내향성(Si)	44.44(9.02)	45.50(8.85)	-.44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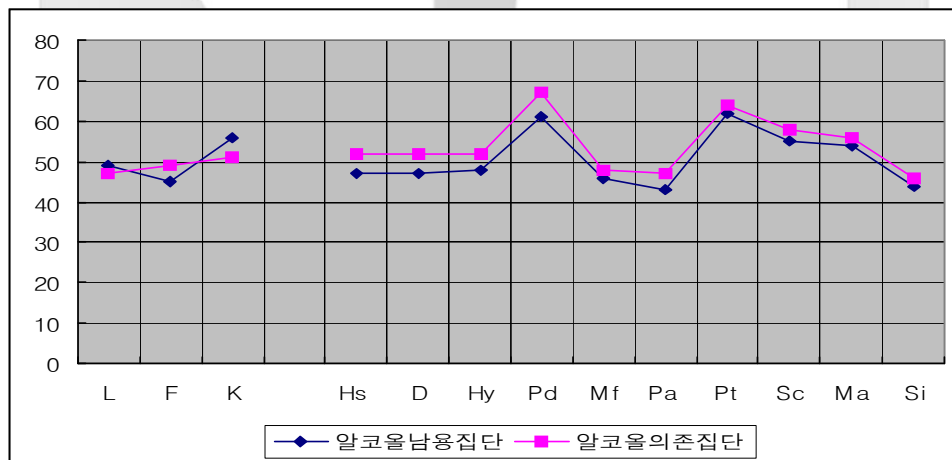


그림 3. 알코올 남용집단과 의존집단의 MMPI 프로파일

더 경험하고 있고 충동적이고 비순응성인 특성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 중독 음주운전자 집단이 알코올 비중독 음주운전자 집단이나 일반 운전자 집단에 비해 충동성과 반사회성 등의 행동통제 부족을 반영하는 새로운 경험추구 특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채규만과 류명은(2002)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두 집단의 MMPI 프로파일 이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어, 알코올의 의존 정도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논 의

본 연구는 음주운전자들의 재활과 교육을 담당하는 지역센터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음주운전으로 수강명령 교육을 받게 된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성격, 정서 및 현재의 적응상태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을 알코올 남용집단과 의존집단으로 구분하여 알코올 의존 정도에 따른 특성 차이도 알아보았다. 이에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사용하였으며, 알코올 의존집단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는 한국형 알코올 선별검사(NAST)를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87명의 자료가 포함되었으며, 성별을 통제하기 위해 남성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들의 전체 MMPI 결과를 살펴보면, Pd와 Pt 척도에서 각각 T62.73, T62.95로 다른 척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음주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행동통제의 부족'과 '부정적 정서성'이 강하다는 이전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Cox, 1987; Nathan,

1988; Sher & Trull, 1994). 즉, 충동성, 비순응성 및 좌절에 대한 인내력의 부족하며,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특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여 반복되는 행동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며, 정서적으로는 불안감, 불안정감 및 긴장감 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 Pt 척도의 상승은 대상자들이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이후 받게 된 처벌이나 수강명령 교육과 같이 일정시간 동안 통제되고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인한 불안, 긴장, 염려감 및 불편감 등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Pt 척도와 관련이 있는 조직화 능력이나 도덕적인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는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MMPI 프로파일 특성을 연구했던 이전의 국내연구에 비해(신행우, 1998) 비교적 뚜렷하고 외국논문들과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의 MMPI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군집분석을 통하여 동질 집단으로 나누어보았다. 먼저 T점수를 70이상, 60~69점, 45~59점, 그리고 44점 이하로 구분한 분석에서, Hs, D, Hy와 같은 신경증적 척도와 Ma, Sc, Ma척도는 T45~59점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반면, Pd척도와 Pt척도는 T60~69 구간에 각각 43.7%, 48.3%이며 T70 이상인 경우도 두 척도 모두 17.2%로 나타나, 연구 대상자의 절반이상이 T60 이상의 Pd와 Pt 척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에서는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 중 19.5%(17명)가 임상척도의 전반적인 상승과 함께 특히 Pd척도와 Pt척도는 70에 가까운 T점수를 보이고 있으

며, Sc척도도 비교적 높은 수치(T65.42)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운전자들의 성격특성을 단지 정상집단과 비교했던 이전의 연구들에 비해(신행우, 1998; 이미형, 1998; Sutker, Brantley, & Allain, 1980), 음주운전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개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음주운전자들 중 일부는 기본적인 성격구조도 취약할 뿐 아니라 현재의 심리적 불편감도 매우 큼을 시사하는 바, 음주운전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보다는 일괄적인 프로그램 외에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의존 정도에 따른 MMPI 프로파일의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NAST를 이용하여 알코올의존집단과 알코올남용집단으로 나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강명령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 중 대략 4명 중 1명이 알코올 의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은 D, Hy, Pd 및 Pa 척도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알코올 중독인 음주운전자가 알코올 중독이 아닌 음주운전자들에 비해 충동성과 반사회성이 높았다는 채규만과 류명은(200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고 두 집단의 MMPI 프로파일이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어, 알코올 의존 정도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음주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음주운전 수강명령 교육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자발적인 프로그램이기에, 질문지를 작성할 때 무응답이나

무성의한 응답이 많았다. MMPI의 경우에는 그나마 타당도 척도에 의한 선별작업이 가능하지만 NAST 등의 문항에 있어서는 불성실한 응답을 구별하기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충분한 교육과 라포 형성을 통해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셋째, 사례수가 87명으로 적은 수이며, 지역선정에 있어서도 서울지역에 한하여 연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여 타당도가 높은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빈, 한광수, 이정국, 이민규, 김유광, 김철규 (1991). 한국형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연구(III). *신경정신의학*, 30, 569-578.
-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89).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중술 (1988). *다면적 인성검사 - MMPI의 임상적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은경 (2003). *음주운전 수강명령교육 대상자들의 변화동기와 변화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종호, 박민철, 박남진 (1989). 입원한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8(1), 88-96.
-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형 (1998).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알코올성 장애와 정신건강*. *정신간 호학회지*, 7(2), 333-343.

- 정충영, 최이규 (1997). SPSSWIN을 이용한 통계 분석. 서울: 무역 경영사.
- 조대경 (1995). 알코올과 운전. 심리과학. 1995 vol 4, No 2. 67-77.
- 조성남, 이대회 (1984). 알콜리즘 환자의 인격특성에 관한 연구-MMPI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23(4), 452-461.
- 채규만, 류명은 (2002). 성격, 인지, 사회적 환경 및 음주행동과 음주운전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63-789.
- 황성익 (1996). 음주운전에는 엄한 규제가 교통안전, 170, 14-18.
- 최상진, 손영미, 김정인 (2001). 음주운전에 미치는 운전자의 태도 및 성격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 보건복지부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 의식행태조사(20세이상 성인) 부문」, 2002. 12.
- Cox, W, M. (1987).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In H. T. Blane & K.E.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pp.55-89). New York: Guilford Press.
- Donovan, D, M. (1980). *Drinking behavior, personality factors and high-risk driving*. University of Washigton, Seattle.
- Nathan, P, E. (1988). The addictive personality is the behavior of the add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183-188.
- Selzer, M, L., & Barton, E.(1977). The drunken driver: A psychosocial study. *Drug and Alcohol Dependency*, 2, 239-253.
- Sher, K. J., & Trull, T. J. (1994). Personality and disinhibitory psychopathology: Alcoholism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92-102.
- Steer, R, A., Fine, E. W., & Scoles, P, E. (1979), Classification of men arrested for driving while intoxicated, and treatment complications: A cluster analytic stud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0, 222-229.
- Sutker, P. B., Brantley, P. J., & Allain, A. N. (1980). MMPI response patterns and consumption in DUI offend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3), 350-355.

원고접수일 : 2003. 10. 29
 게재결정일 : 2004. 1. 29

MMPI profile characteristic in Drunken Driving Offender's Program

Moon Hee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Hyun Seob Cho

Korea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Research Foundati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sis the MMPI response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in court-ordered drunken driving offender's program, and thus to make a effective mediating program and therapy. The sample consisted of 87 men. As results, scores on Pd and Pt were elevated with T 62.7, T 62.9. This means to impulsivity, assertiveness, nonconforming, social alienation, low tolerance for frustration, and reduced sence of responsibility and morals. And it regards to experience anxiety and tension and so on about panalty in drunken driving and the situation to control for a while, fundamentally including anxiety and tension. By a section, from Hs, D, Hy, Mf Sc, Ma, there are many cases T 45 ~59 scores and from Pd, Pt measure and so on from T 60 to T 69. It comes out highly comparatively, it can guess that there are emotional unstability, irritability, impatience, and unadaptable person in daily life. In cluster analysis, about 19.5% of participants in court-ordered drunken driving offender's program were elevated in Pd, Pt, Sc scores to need to get a individual psychotherapy. Lastly alcohol dependent group comes out highly significant in D, Hy, Pd, Pa measure and so on compare with alcohol abuse group. But it is similar to MMPI pattern, so it is suggestive of insignificant that difference of character according to drinking degree.

Keywords : drinking driving, drinking driver, alcohol dependence, MMPI, cluster analysis